

논문접수일 : 2013.12.20 심사일 : 2014.01.05 게재확정일 : 2014.01.26

오브리 비어즐리의 작품에 나타난 우키요에의 영향

The influence of Ukiyoe on the works of Aubrey Beardsley

강 민 정

경운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Kang Min jeung

Dept. Multi-media, Kyungwoon University

1. 서론

2. 근대 조형표현에 영향을 미친 자포니즘과 우키요에

- 2.1. 근대 디자인의 형성과 자포니즘
- 2.2. 우키요에의 특성과 그 영향

3. 오브리 비어즐리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특성

- 3.1. 근대 디자인의 형성과 오브리 비어즐리
- 3.2. 오브리 비어즐리의 작품의 특성

4. 오브리 비어즐리의 작품에 나타난 우키요에의 영향에 대한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19세기말, 산업혁명이후 새로운 계층의 형성과 생산방식의 변화는 예술과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많은 작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자포니즘'이다.

일본풍에 대한 열광적인 사조인 자포니즘을 형성케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에도시대의 다색 목판화인 '우키요에'였다. 우키요에는 에도의 시민계층과 대중문화의 형성이라는 배경 속에서 생성된 산물로 동양의 조형표현 특성과 철저한 분업화에 의해 생산되는 목판화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곡선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방식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평면의 조합, 강렬한 이미지 전달을 위한 장식적인 요소들의 삽입과 대중들이 선호하는 주제는 서양의 근대 예술가들에게 이제껏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근대 초기의 디자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오브리 비어즐리' 역시 이러한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은 작가다. 그는 우키요에를 수집하고 자신의 드로잉에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유려한 곡선과 극단적인 흑백 평면의 대비, 이국적이고 화려한 장식의 표현적 특성과 적나라한 성애의 묘사와 기괴하고 공포감을 담은 이미지의 내용적 특성에서 우키요에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어즐리의 대표 작품의 분석을 통해 그에 나타나는 우키요에의 영향을 밝혀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 디자인의 형성에 있어 동양의 영향

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제어

오브리 비어즐리, 우키요에, 근대 디자인

Abstract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formation of new social classes and changes in production method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fluenced art and design. A number of artists made various attempts to change the ways of creating works of art accordingly. One of the phenomena that affected those changes was 'Japonism'.

The biggest factor in setting the trend of enthusiastic following of Japanese style, Japonism, was 'Ukiyoe', multicolored woodcuts that prospered in the Edo period.

Ukiyoe was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emergence of citizens and popular culture in the Edo period. It was characterized by both oriental style of molding expression and an elaborate division of labor that was required for woodcut engravings. The expression method of emphasizing curved lines, the combination of flat surfaces composed of dramatically contrasted features, the inclusion of decorating elements to depict intense images, and the public favored themes provided Western artists in modern age with clues for a new style which they had never encountered before.

Aubrey Beardsley who was hugely influential in the creation of a design style in the early modern age was one of the artists inspired by Ukiyoe. He collected Ukiyoe and tried to incorporate it into his illustrations. His works show the influences of Ukiyoe in terms of expressive qualities including smooth curved lines, the sharp contrast of black and white flat surfaces, exotic and splendid decorations and of content characteristic such as daring portrayals of sexual love and grotesque, frightening images.

This study sought to illuminate the influences of Ukiyoe on Beardsley's works by analyzing his major illustrations. Based on this, the present research looked into the influences of Orientalism on the formation of modern design.

Keyword

Aubrey Beardsley, Ukiyoe, Modern Design

1. 서론

산업혁명만은 생산방식의 변화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다. 산업사회의 형성은 사회의 구조와 계층의 변화뿐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술은 산업과의 합의점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산업사회에 있어서 예술은 대량생산과 새로이 형성된 시민계층에 대한 수요를 무시할 수 없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누보(Art Nouveau)'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디자인이라는 영역에 대한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논의의 결과였으며, 그 방법을 달리하더라도 예술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노력했다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동양의 조형표현법이었다. 일본 에도시대의 풍속화인 '우키요에(浮世繪)'는 근대 예술가들의 조형표현의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역사주의에 대한 반감과 예술의 새로운 가치 형성에 동양의 조형표현은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변신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르누보 작가들의 작품에 조형표현의 특징적인 부분들에서 일본풍인 '자포니즘(Japonism)'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우키요에'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Vincent Beardsley, 1872-1898)'는 이러한 변화의 근대 한 가운데인 19세기말의 일러스트레이터다. 그는 파격적인 작품을 통해 새로운 조형방식을 제시하는 한편 기괴함과 대담한 성적인 표현으로 시대를 비판했다. 그의 독특한 작품들은 아르누보를 발전시키고 다른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근대 디자인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어즐리의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법과 주제는 근대 조형 예술, 특히 막 형성되기 시작한 디자인 영역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어즐리 역시 자포니즘의 영향 안에 있던 작가로써 그의 작품의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우키요에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그의 작품과 그가 남긴 글 등에서 그가 일본의 회화에 지대한 관심과 영향에 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그의 작품에 나타난 우키요에의 영향은 어떠한 것이며, 그 영향의 결과 나타난 비어즐리의 작품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근대 디자인에 영향을 준 자포니즘과 우키요에의 형성배경과 그 특성에 대해 정리하고 비어즐리 작품의 주제와 조형 표현법에 나타난 우키요

에의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 나아가 이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대 디자인의 형성에 있어 동양의 영향에 대해 정의 내려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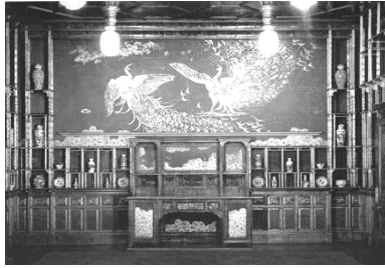
2. 근대 조형표현에 영향을 미친 자포니즘과 우키요에

2.1. 근대 디자인의 형성과 자포니즘

19세기 말, 유럽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는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시대정신과 변화된 생산방식에 대한 논의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예술은 이전의 조형 방식을 벗어나 새로우면서도 변화된 사회에 적합할 수 있는 양식을 개발하기에 힘썼다. 다양한 나라의 많은 작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아르누보다.

아르누보는 근대의 예술이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이것에 알맞은 조형 양식의 발명에 가까운 변화였다. 역사주의적 방식에 따른 응용미술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에서 나타나는 중세로의 회귀와 같은 방식이나 자연주의적 장식에서 방법을 찾은 '오웬 존스(Owen Jones)'와 같이 여러 가지 시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형성된 일본풍의 사조인 자포니즘은 예술가들의 변화의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었다.

서양의 예술 조형표현에 있어 동양의 영향은 '바로크(Baroque)', '로코코(Rococo)'에 영향을 준 중국의 공예품에 대한 추종인 '시누아즈리(Chinoiserie)'에 이어 19세기 중반에는 일본의 개항에 따른 문물교류에 따라 일본의 예술품에 대한 열광적인 자포니즘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메튜 페리(Matthew Perry)' 제독이 1854년 무력을 통한 일본과의 교역을 성사시킨 후 미국과 유럽의 사회에 일본의 미술품들이 들어 오기 시작하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 예술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고조되어갔다.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의 예술품에서 영감을 얻어 소재나 표현방식에 있어 동양의 그것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까지 가질 정도였다.



[그림 1] 제임스 맥닐 휘슬러, <공작의 방>, 1876-1877

1867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 일본의 공예품이 소개된 이후 서양에서는 새로운 조형 표현 방식의 일본풍의 미술품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 중 프랑스의 '지그프리드 빙(Siegfried Bing)'과 영국의 '아서 래즌비 리버티(Arthur Lasenby Liberty)'는 서양사회에 일본의 예술품을 소개하고 자포니즘이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둘은 일본풍의 공예품과 그림을 취급하는 상점을 열어 대중적으로 보급하고 보편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 작품의 보급은 공예를 비롯해 화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인상주의(Impressionism)', '상징주의(Symbolisme)', '심미주의(Aestheticism)'와 같은 경향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의 예술품에서 나타나는 조형표현은 당시 새로운 방식에 목말라있던 예술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작품의 주제나 표현방식에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도나 색상, 묘사의 방법에 있어 르네상스로부터 이어지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들만의 화풍과 사조를 만들어냈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나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와 같은 화가는 물론 '쥘 세레(Jules Cheret)'를 시작으로 여러 아트 포스터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충분히 자포니즘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자포니즘은 근대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응용미술로 시작된 디자인의 영역까지 그 표현방식과 주제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사회에 알맞은 조형방식에 대한 고민은 자포니즘을 통해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았던 것이다. 비록 동양의 조형방식이 그 변화의 중심은 아닐지라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만은 명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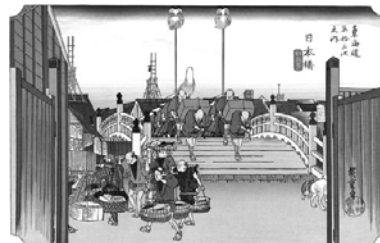
2.2. 우키요에의 특성과 그 영향

자포니즘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미술품은 단연코 '우키요에'였다. 이전의 '시누아즈리'나 자포니즘이 시작되던 초기에 있어 중심이 되는 예술품은 도자기였다. 중국 청나라의 도자기 수입이 줄어들

자 그 대체품으로 일본의 도자기를 수입하던 것이 우키요에까지 그 관심이 번져갔던 것이다. 개항이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품목의 예술품이 일본에서 서양으로 소개되고, 그 중 [그림 2]의 '카츠시카 호쿠사이(葛飾 北齋)'나 [그림 3]의 '안도 히로시게(安藤 廣重)'와 같은 '우키요에' 대가들의 그림이 작품집으로 소개될 정도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2] 카츠시카 호쿠사이, <불타는 후지>, 1831



[그림 3] 안도 히로시게, <니혼바시>, 1833-1834

우키요에는 일본 에도(江戸)시대의 풍속화다. 막부(幕府)시대의 정치적 중심지인 에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붓으로 그린 육필화도 존재하지만 다색 목판화로 인식되어지는 그림이다. 판화라는 제작방식은 그 생성배경과 표현방법의 특성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우키요에는 고급의 예술이 아닌 시민계급의 문화가 녹아있는 그림이다. 우키요에라는 명칭에서 그러하듯 즉흥적이고 유희적인 삶을 노래하는 그림으로 당시의 시민계급인 초닌(町人)¹⁾의 대중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기의 우키요에에 주로 등장하는 주제는 주로 대중들이 선호하는 가부키(歌舞伎)의 배우나 유곽의 기녀들의 인물화, 또는 유곽의 풍경이나 풍속, 괴담, 춘화 등을 다룬다. 이런 그림을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상시 판매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체제인 다색 목판화의 기법이 아주 유용했다.

우키요에의 생산 방식은 철저한 분업에 의한 하나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에시(繪師), 목판을 조각하는 호리시(堀師), 판에 물감을 묻혀 찍어내는 스리시(摺師)로 이루어지는

1) 에도시대 상공인으로 부의 축적을 통해 도시문화를 주도하던 계층을 말한다.

구성원들이 한모토(版元)라 불리는 출판업자의 지휘 아래 분업에 의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바야시 다다시, 1984/2004, p.21).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은 누군가에 의한 주문생산이 아닌 언제든 누구에게든 판매할 수 있도록 대량 복제되어 준비된다. 따라서 우키요에는 판화가 가진 조형적 특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여기에 우키요에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동양의 조형표현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 동양의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조형표현 방식인 선에 의한 묘사나 여백, 평면성 등의 특성에 목판화이기에 나타나는 강렬한 색채와 뚜렷한 대비, 복제가 수월하도록 더욱 간략한 표현,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한 부분만 극단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구도 등이 더불어 조화되어 나타난다.

우키요에의 이러한 특성은 서양의 자포니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나타나는 강렬한 색채 표현과 극적인 구도, 외곽선을 강조하는 표현, 인물 중심의 소재 등은 우키요에의 영향이었다.



[그림 4] 앙리 들루즈 로트레크, <물랭루주에서 춤>, 1890

또 아르누보의 표현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유기적 곡선의 강조와 묘사의 간략화를 통한 평면성 또한 우키요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던 모든 근대 예술가들에게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뜻이다. 특히, 응용미술이라 여겨지던 디자인 영역에 있어 가장 문제점이었던 대량생산에 필요한 조형양식의 해결책으로 대량 복제되어 판매 가능한 우키요에의 표현방식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5]와 같은 석판 인쇄를 이용한 포스터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이 우키요에의 영향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림 5] 쥘 세레, <물랭루주의 무도회>, 1889

우키요에는 자포니즘을 형성하는 큰 영향을 미친 예술품이었다. 우키요에의 특성들은 새로운 조형표현 법과 소재를 갈망하던 서양 예술가들에게 그 때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근대 평면 조형방식을 형성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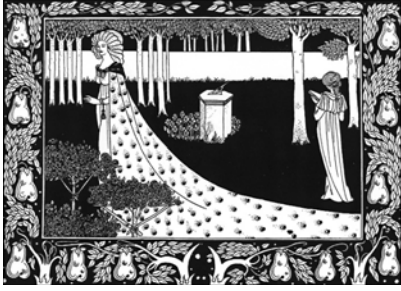
3. 오브리 비어즐리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특성

3.1. 근대 디자인의 형성과 오브리 비어즐리

19세기 말, 많은 예술가들이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조형표현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도는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으나 모두 새로움에 대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오브리 비어즐리'는 이러한 세기 말의 일러스트레이터였다. 25세의 이른 나이에 절명한 비어즐리는 마치 아르누보처럼 짧은 기간 화려하게 꽃피우고 사라졌지만 이후의 근대 조형표현이 형성되는데 큰 밑그림을 완성하게 된다.

비어즐리가 활동한 시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화의 여파에 예술과 디자인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던 시기다. 예술가들은 디자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고 여러 가지 시도를 도모하여 아르누보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냈다. 아르누보는 예술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쳤고, 그 조형표현에 있어 발명에 가까운 독창적 방식을 만들어냈다. 비어즐리는 그래픽디자인 영역에 있어 아르누보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비어즐리가 본격적인 작품을 시작할 당시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라파엘전파의 그림에서이다. 19세가 되던 해인 1891년, 여러 인맥을 통해 라파엘전파의 작품을 접한 비어즐리는 '번 존스(Burne Jones)'를 찾아가 만나 이듬해 [그림 6]의 <아서왕의 죽음(The Morte d'Arthur)> 삽화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일러스트 작가로서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그림 6] 오브리 비어즐리, <아서왕의 죽음>, 1893

이후 여러 삽화와 잡지 <스튜디오(The Studio)>의 창간호 표지, <옐로 북(The Yellow Book)>의 표지와 편집 등을 작업하며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게 된다. 이 작품들은 굉장히 퇴폐적이며 기이하고 무섭기까지 하다는 평단의 악평과 동시에 비어즐리를 유명세에 한 가운데 놓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는 대중들에게 심미주의자인 비어즐리의 작품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의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성과 청렴함을 추구하는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었으며 표현기법은 물론이거니와 작품의 주제 또한 굉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비평가들은 비어즐리의 삽화에 대해 이제까지 없었던 무절제함을 비난하고, 작품을 불법 화해 달라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였다(스티븐 에스쿠릿, 2000/2002, p.55).

하지만 비어즐리만의 독특한 표현의 삽화는 충분히 아름다웠으며, 그에 따른 제작방식 또한 과거의 것과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아르누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틀이 되었던 것이다. [그림 7]의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의 <살로메(Salome)>에서 보이는 비어즐리의 작품들이 가지는 주제와 표현법은 그 어느 작품보다 진보적인 것이었으며, [그림 8]의 <리시스트라타(Lysistrata)>에서 보이는 완숙한 조형적 특성과 성(性)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역사주의적 방식을 탈피하고자 했던 당시 예술가들에게도 충격적일 정도로 앞서 나가는 근대적 성향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오브리 비어즐리, <살로메>, 1894



[그림 8] 오브리 비어즐리, <리시스트라타>, 1896

짧지만 격정적인 삶을 살았던 비어즐리는 동시대의 심미주의자들과 함께하며 세기말의 감성을 완성시켰다. 그의 상징주의적인 드로잉과 관능적인 표현들, 그리고 주제에 있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반영 등은 근대 사회에 있어 새로운 방식의 표현들을 추구하던 동료 예술가들에게 자극이 되었으며, 이후 '분리파(Sezession)', '글래스고파(The Four)', '윌리엄 브래들리(William H. Bradley)' 등의 작품에 영향(앨리스테어 덩컨, 1994/1998, p.20)을 미치게 된다. 비어즐리는 세기말의 흐름을 이어 다음 세기의 조형 활동에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3.2. 오브리 비어즐리의 작품의 특성

비어즐리의 작품의 대부분은 잡지의 일러스트나 삽화다. 그는 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주는 일러스트레이터다. 책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기에 대중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시의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며, 그 흐름을 주도한다. 더욱이 비어즐리가 활동하던 시기는 세기말,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술의 위한 예술의 심미주의가 팽배해 있던 때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기말의 심미주의와 쾌락주의는 예술적 표현 방식에 있어 여타의 다른 것들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함이 있었다.

비어즐리의 작품이 실려 있는 대부분의 서적은 세기말의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그의 삽화 역시 이러한 '데카당스(Décadence)'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서부터 <옐로 북> 그리고 <사보이(The Savoy)>에 이르기까지 보수적인 비평가들과 대중의 혹독한 비평을 받을 정도로 관능적이고 자극적이며 비도덕적인 내용과 삽화들로 이루어져있었다. 이는 책의 주된 논조가 담고 있는 위선적인 시대를 비판하는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그 조형 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것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형태의 과도한 변형, 적나라한 성적

인 표현을 통해 역사적인 기법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박창석, 2004, p.56) 과장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역사주의적 태도의 예술가들을 뚱뚱하고 권위주의에 물든 사람으로 표현하여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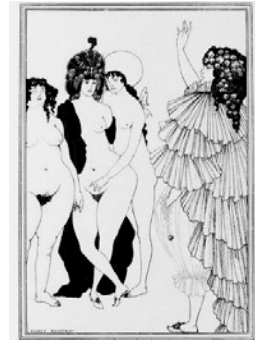
[그림 9] 오브리 비어즐리, <사보이>, 1895

여성에 대한 표현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 [그림 10]의 <살로메>에 나타난 여성의 극대화된 여성성은 당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남성과 여성 간의 계급적 분쟁과 갈등을 담고 있는 것이다(박창석, 2004, p.89). 이것을 비어즐리는 에로티시즘을 통해 표현하였고,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여성들을 등장시켜 남성성을 위협하는 인물들로 표현하였다.



[그림 10] 오브리 비어즐리, <살로메>, 1894

이러한 에로티시즘이 극으로 달한 작품이 바로 <리시스트라타>다. 비어즐리는 [그림 11]과 같이 <리시스트라타>가 가진 '페미니즘(feminism)'의 사상을 성적으로 극대화시켜 표현함으로써 도덕적 관념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던 이중적인 성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비판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비어즐리가 데카당스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거이기도하다.



[그림 11] 오브리 비어즐리, <리시스트라타>, 1896

비어즐리의 작품은 내용적인 측면이나 표현적 측면에서 모두 시대적 비평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비평이나 역사주의적 예술가들에 대한 반발, 그리고 세기말의 혼돈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갈구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가진 공통적인 주제이자 해결해야할 문제였다. 특히 비어즐리의 작품에 드러난 파격적인 표현방법은 때로는 기이하게 때로는 관능적으로 보이며 이제껏 있었던 그 어떤 작품들보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비어즐리 작품의 이러한 특성은 세기말의 과도기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에는 부족하다. 그의 파격적인 시도가 있었기에 근대의 그래픽 디자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방향의 키를 돌려놓는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이다.

4. 오브리 비어즐리의 작품에 나타난 우키요에의 영향에 대한 분석

아르누보의 형성에는 자포니즘의 영향이 지대했다. 자포니즘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키요에는 동양의 회화 표현 방식에 목판화라는 특색이 더해져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조형 표현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내용 또한 고급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평범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춘 풍속화나 배우나 여성 등을 표현한 인물화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우키요에의 특성은 유입 당시의 서양 예술가에서 필요로 하던 새로운 표현방식이나 역사주의에 대한 반항의 표현에 있어 상당한 실마리가 되었다.

이는 비어즐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비어즐리는 자신의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시대의 풍자와 근대적인 표현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우키요에의 영향이 있었음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도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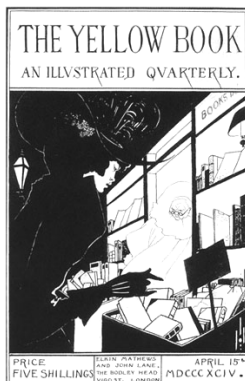
졌다. 그는 친구에게 완전히 새로운 드로잉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방식은 일본을 암시하지만 완전히 일본적이지 않다는 글을 보냄으로써 우키요에의 영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스티븐 에스크릿, 2000/2002, p.54).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우키요에의 영향은 표현양식에서부터 동양적 요소의 삽입이나 성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내용적인 면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 12]와 같이 비어즐리의 작품은 선을 표현의 중심 요소로 하고 있다. 서양의 전통적인 형태 표현 방법은 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비어즐리의 작품은 유기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붓에 의한 선화 중심인 동양의 회화 표현 방법의 특색이며 우키요에의 제작방식인 목판화를 통해 더욱 강조되어 드러나는 특성의 영향이다.



[그림 12] 오브리 비어즐리, <미세스 패트>, 1894

곡선에 의해 면은 구분되고 분할된 면을 이루는 색상은 흑과 백, 단 두 가지뿐이다. 음영의 표현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에 여백과 평면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 역시 우키요에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면을 강렬한 단색으로 표현하여 대비를 이루게 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처럼 여성을 검은색의 실루엣만으로 표현하고 흑백의 강렬한 대비로 어두운 밤거리와 밝은 상점을 대비시키는 기법을 선보인다.



[그림 13] 오브리 비어즐리, <옐로 북>, 1894

조형표현의 방법적인 측면 이외에도 작품에 자주 쓰이는 소재에서도 우키요에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림 14]에서 보이는 공작무늬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공작무늬의 모티브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림 1]의 작품에서처럼 자포니즘을 상징하는 요소다. 비어즐리의 작품에는 다음 [그림 15]에서처럼 공작무늬가 장식적인 요소로 자주 표현되어 이국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한 몫을 한다.



[그림 14] 오브리 비어즐리, <살로메>, 1894



[그림 15] 오브리 비어즐리, <살로메>중 부분, 1894

이외에도 동양적인 요소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림 16]처럼 병풍을 배경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림 17]과 같이 등장인물이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着物)'를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에서 장식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6] 오브리 비어즐리, <아서왕의 죽음>, 1893



[그림 17] (좌) 오브리 비어즐리, <살로메>, 1894
(우) 오브리 비어즐리, <마법사 베길리우스>, 1894

우키요에의 영향은 표현적인 측면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드러난다. 작품 전반에 걸쳐 성적 면을 강조하여 표현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여러 예술가들의 심미주의적 성향은 1860년대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었으며, 비어즐리 또한 그러했다. 그의 이러한 심미주의적 특성은 일본판화를 수집하여 [그림 18]과 같은 에로틱한 작품들을 벽에 걸어두기도 했다(강순천, 2000, p.20)는 그의 경력을 통해 우키요에의 영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9] <리시스타라타>에서 보이는 노골적인 성적 내용의 작품뿐 아니라 <살로메>, <엘로 북>, <사보이>에서도 드러나는 에로티시즘은 우키요에의 춘화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8] 기타가와 우타마로, <차집의 2층에서>, 1788



[그림 19] 오브리 비어즐리, <리시스타라타>, 1896

비어즐리의 작품은 이국적인 분위기와 에로티시즘 외에도 기괴함과 공포가 동시에 느껴진다. 이러한 감정이 느껴지는 작품들에는 극적인 표정의 인물, 인체의 변형이나 신화 속의 기형아, 괴물 등과 같은 묘사가 등장한다. 이는 [그림 20]과 같이 우키요에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 괴담을 담은 그림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다음 [그림 21]에서처럼 신체의 변형을 통한 기괴함을 표현하는데 있어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20] 가츠시카 호쿠사이, <로쿠로쿠비>, 1834



[그림 21] 오브리 비어즐리, <살로메>, 1894

이와 같이 비어즐리의 작품에는 표현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현	조형요소	유기적 곡선, 여백과 평면, 색의 대비 등
	소재	공작, 병풍, 기모노 등
내용	에로티시즘, 공포 등	

[표 1] 비어즐리의 작품에 나타나는 우키요에의 영향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 아르누보의 성격을 형성시킨 비어즐리는 세기말적 특성을 표출하여 작품을 만

들어갔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당시의 작가들이 그러하듯 자포니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유기적 선과 여백, 그리고 강렬한 대비 등의 표현법과 공작이나 병풍, 기모노 같은 요소들에 의한 이국적인 장식들,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노골적인 성애와 공포는 우키요에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했던 것에는 일본과의 교역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시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비어즐리가 활동하던 시기의 서양과 우키요에가 성행하던 일본사회의 배경과의 공통점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비어즐리가 활동하던 시기는 산업화에 따른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등장, 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조형법의 요구, 그리고 세기말의 분위기가 팽배해있던 시기였으며, 이 시기에 나타난 우키요에 역시 '막부'의 등장과 시민계급의 성장과 유곽문화의 발달에 따른 대중문화의 형성에 그 배경이 있다. 비어즐리의 작품이 책이라는 대중문화를 통해 알려지듯이 우키요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한 대중적인 예술장르였던 것이다.

5. 결론

19세기 말, 서양은 근대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산업화가 가지고 온 변화는 예술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며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생산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계층의 형성 등 그에 알맞은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아르누보와 같은 디자인 운동이나 양식의 발생을 불러오게 했다.

자포니즘의 형성은 예술가들의 새로움에 대한 시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표현방법의 실마리가 동양으로부터 건너온 예술품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포니즘을 형성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키요에다. 에도시대의 풍속화인 우키요에는 시민계급의 등장과 대중문화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 분업화에 따른 제작방식과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미리 만들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는 우키요에는 유려한 곡선과 대범하고 화려한 색채, 극적인 구도와 여백과 같은 동양 회화 표현의 특성과 다색 목판화의 조형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대중들이 선호하는 유명한 배우나 여성들을 다룬 인물이나 풍경, 전설이나 괴담, 춘화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

우키요에의 이러한 특성은 새로움을 추구하던 19세기말 서양의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비어

즐리 역시 이러한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은 세기말의 아르누보 작가였다. 비어즐리는 자신의 드로잉이 일 본을 암시함을 밝히고, 우키요에를 벽에 걸어두기도 했다. 그의 작품에서 보이는 유기적인 곡선을 이용한 형태의 표현과 극단적인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평면의 조합 그리고 색다른 소재들을 이용한 이국적이고 화려한 장식 등에서 우키요에의 조형 표현의 특성을, 적나라한 성애의 묘사와 기괴하고 공포감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은 우키요에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비어즐리의 작품에 있어 우키요에의 영향은 조형 표현 방법이나 소재, 그리고 내용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근대의 디자인이 형성되는데 있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방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는 실마리로써 우키요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비어즐리의 작품이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다음 세기의 근대 디자인의 형성에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서양의 근대 디자인의 형성에 있어 새로운 계층의 형성과 예술의 대중화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에 에도시대의 시민의 계층의 형성에 따른 대중문화의 산물인 우키요에가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천 (2000). 비어즐리의 초기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1, 9-33.
- 박창석 (2004). 『비어즐리 또는 세기말의 풍경』. 한길아트.
- 小林 忠 (1984), 浮世繪の魅力, 이세경 역 (2004). 『우키요에의 美』. 이다 미디어.
- Alasrair Duncan (1994), Art Nouveau, 고영란 역 (1998). 『아르누보』. 시공사.
- Stephen Escritt (2000), Art Nouveau, 정무정 역 (2002). 『아르누보』. 한길아트.